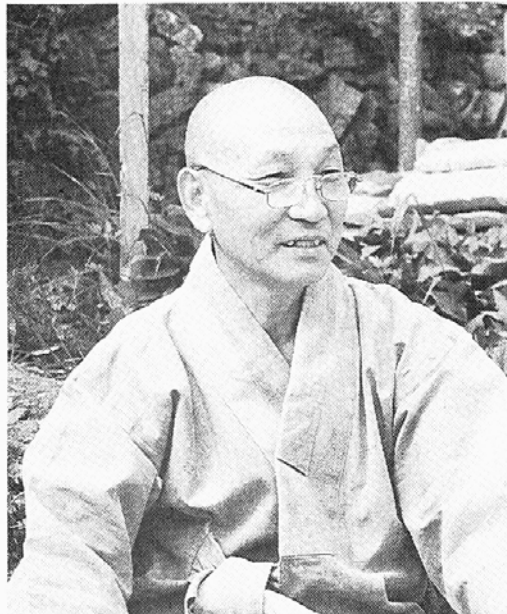


# “전쟁없는 정토세상 기원합니다”

보훈의 달 6월에 만난 무공 스님

6·25 참전서 ‘살생’ 참회...군포교 원력 다해



○군포교에 지원을 이기지 않는 무공스님은 살생업을 씻으며 참회수행을 하고있다.

6·25전쟁의 참담한 소용돌이 속에서 질긴 목숨을 이어 45년이라는 세월의 질곡을 건너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군인들 앞에 선 무공스님(가명 칭오사주지). 세수 70의 나이에도 아랑곳 없이 몸소 군부대를 다니며 일주일내내 장병들의 정신강화를 위해 애쓰는 스님은 보훈의 달 6월이면 더욱 바쁘게 움직인다. 부산 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재학중인 1950년, 스님은 6·25가 발발하자 무작정 군부대에 있어 포항 3사단 수백대에 학도병으로 가담했다. 부상으로 후송돼 부산 동래 육군종합학교 육군보병학교를 거치는 우여곡절 끝에 보병 제 6사단 2연대 2대대 5중대 소대장으로 부임, 강원도 화천 북한강 도하작전·용문산전투등 휴전때까지 최전방 전투에 참여했다. 치열한 전투가 끝난 아침이면 수많은 젊은 꽃병오리들의 주검을 보며 살생의 참화를 수

도 없이 많이 했다는 스님은 “전쟁중에 어쩔수 없이 살생을 하고 부상도 대어섰던 당했지만 업보가 많아서 그런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며 잠시 눈을 감고 지난날을 회상하기도. 휴전후 결혼을 했으나 갑작스런 부인의 죽음으로 또다시 인생의 무상함을 느낀 스님은 범어사 고암스님을 만나 “제행무상”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고 출가를 단행했다. 스님은 송광사 구산스님이 자신에게 던진 물음 “용은 종이 뭇물고? 를 화두로 삼아 참선공부를 하고 만행을 하면서 전쟁 중의 살생 업보를 씻으려 참회수행을 계속해 왔다. 20여년전 지금의 가명 칭오사에 자리를 잡고 은둔의 삶을 시작하려 했던 스님은 80년 초 우연히 인근 부대 호국연호사의 정원한 군법사를 만나 군포교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 전쟁에 과연 무슨 인연이 있었을까. 총을 맨 군인의 모습이 아닌 그 군인들의 애환과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한 수행자의 모습으로 스님은 군인들 곁에 다가갔다. 군법사와 함께 미개척지나 다름없었던 군포교를 위해 무공스님은 외부지원법담인 청평국군병원, 66사단, 제 3야수교 그리고 예하부대법담인 26연대, 기갑연대, 포병여단등의 법당설립과 법회 진행까지 몰입하면서 자원을 아끼지 않았다. 군대 선배로, 군인들의 정신적인 아버지로 수행자 본인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포교에 대해 잘 모르는 불자들이 많습니. 군법당을 방문해 군인들과 함께 법회를 보며 그들의 힘이 되어주는 것은 인간방생의 중요한 포교라는 것을 불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라 말하는 스님. 지난날 빛났던 물들었던 어린 기억들을 무공스님은 어느새 풀어내고 있었다.

가야산 국립공원 골프장건설을 반대하는 산중회의가 해인사에서 열렸다. 법보종찰 해인총림(방장 해암)은 지난달 28일 해인사 보경당에서 해암스님을 비롯 스님과 신도등 6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가야산골프장건설 저지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해암스님은 대회를 통해 “자연과파괴는 인간성을 상실하게 한다”며 “가야산을 파괴하는 골프장건설 저지에 불자들이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이어 해인총림은 성명서에서 민중문화유산과 환경보전을 생 각하지 않는 졸속적인 개발행정을 신랄히 비난하고 건설 승인 철회, 피해주민의 생존권 보장, 당국의 공개사과등을 요구했다. 한편 해인총림은 지방자치제에 대비해 사찰주변 환경문제를 전담하는 부서설치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가명=이은자 기자

## 가야산 골프장반대 산중회의

해인사 총림 신도등 6백여명 건설저지대회

가야산 국립공원 골프장건설을 반대하는 산중회의가 해인사에서 열렸다. 법보종찰 해인총림(방장 해암)은 지난달 28일 해인사 보경당에서 해암스님을 비롯 스님과 신도등 6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가야산골프장건설 저지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중앙승가대 모금행사 9일, 부산·경남후원회

중앙승가대 대학 발전위원회(위원장 원주스님)는 오는 9일 오후 6시 부산 허심정(종합문화센터)에서 ‘한국불교 총종과 중앙승가대 발전을 위한 기원 대회’를 봉행한다. 중앙승가대 부산·경남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법회는 학사이전에 따른 기금미려와 부산·경남지역의 불자들에게 중앙승가대 발전에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쌍계사 학생회 창립

쌍계사(주지 고산스님)는 지난달 13일 쌍계사 불교학생회를 창립했다. 이날 창립법회는 중앙승가대 45명이 참석했다. 쌍계사학생회는 월호스님을 지도법사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법회를 갖는다.

## 조계종·선학원 관계개선 모색

13일 간담회 열기로...원로스님 회동

조계종 선학원대책특별위(위원장 법통스님)는 지난 1일 회의록을 갖고 종단과 선학원의 관계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키로 했다. 오는 13일(장소와 시간 추후 확정) 열릴 간담회에는 조계종 원로스님을 비롯 총무원장, 종회의장, 대책특별위원 집행부

각 부장스님과 선학원 원로 및 이사스님들이 참석해 조계종과 선학원의 현안문제에 대해 허심정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특위는 조계종 종법계 정심위원회의에 ‘법인관리법 제정’을 공식으로 요청키로 했다.

## ‘불자역할’ 대토론회 연다

범불교재가연대회의, 10일 조계사에서

범 불교재가연대회의는 재가 불자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대토론회를 오는 10일 오후 3시 조계사 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 재가연대회의는 이번 대토론회를 통해 통일과 지자체등 급변하는 국내의 정세에 불교가 해야할 일을 찾고 출가자와 재가자의 관계와 역할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자 한다. 또한 새로운 전국적인 재가조직 건설을 위한 공개토론을 전개해 시대

에 맞는 재가조직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문옥 재가연합공동의장(불교종단 개혁, 그 평가와 전망)과 전재성 한국불교대 교수(새로운 시대 바람직한 전국재가조직 모색)가 주제 발표를 하며 재흥스님(태고종 보현도량회장), 김종찬(불교신문 편집국장), 손안식(전전국신도회 사무총장), 박희택(진각종 대림청년회장)씨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 실상선원 개원... 불교학교 개강

월원 심원사 서울 포교당인 실상선원(원장 정현스님)이 광주 전국 중구 1동에 법당을 마련하고 지난달 31일 개원했다. 3백여명의 지역불자들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 주지 정현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게 사생활을 하는 도시민에게 부처님말씀을 전하기 위해 포교당을 개원했다”며 “선행은

물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실상선원은 1백평규모의 법당을 비롯 요사채 강의실을 갖춘 도심포교당으로 서울 동부 지역 포교를 담당하게 된다. 실상선원은 개원과 함께 제1기 불교학교를 개강, 오는 7월 개강한다. 어린이 포교를 위한 한문교실도 운영할 계획이다.

## 세계승가대회 11월 8일 개최

말뚝 폐낭 극락사서

세계불교승가대회(회장 오영스님, 본부 대만) 주최 제6차 세계불교승가대회는 오는 11월 8일부터 1주일간 말레이시아 페낭 극락사에서 개최된다. 세계불교승가대회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22일 홍콩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세계 40여국 불교지도자 승려들로 구성된 세계불교승가대회는 4년에 1번씩 개최된다.

여름 어린이불교학교 전국지도자 연수 개최

‘제19차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가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철오스님) 주최로 지난 3, 4일 양일간에 걸쳐 속리산 유스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여름불교학교의 실제교육을 중점으로 △지도자들의 사명감 고취 △여러가지 도구를 이용한 부처님 모습 제작 △놀이를 통한 부처님의 가르침 이해 △우리 소리 전수 △여름불교학교의 실제교육 등 여름불교학교에

필요한 전반적인 일정으로 진행됐다.

종립학교 자료집 발간 조계종, 운영실태등 파악

종립학교 운영실태파악을 위한 자료집이 발간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설조스님)는 지난 1일 회의를 갖고 자료집 발간을 위한 자료수집과 정리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오는 8월 발간 예정인 자료집에는 24개 종립학교(대학 2, 중·고교 22)의 연혁, 정관, 학칙, 이사진 및 교직원 명단, 학교현황, 포교현황, 재산목록 등이 담길 예정이다.

과로사 태국인 장례 부친 외국인노동자의 집

부친 외국인노동자의 집은 지난달 28일 태국·네팔인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질병과 로로 인해 사망한 태국인 위나위의 장례를 치렀다. 부친 외국인노동자의 집은 산재 노동자를 위해 쓰여지는 롯데복지재단의 6백만원을 지급받아 위나위의 가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불교 일번지 조계사에 건립되는 통일기원 만물보전 건립기원법회가 5월31일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7백여 참석자들은 불사가 원만 성취되기를 발원했다.

## 7백여불자 통일주역 발원

조계사 만물보전 건립기원법회...현근스님 출판기념회도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 건립되는 ‘통일기원 만물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통일기원만물보전추진위원회(위원장 김명운)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 신라호텔에서 ‘만물보전기원법회 및 (중생의 삶 깨달음의 길) 출판기념회’를 봉행했다. <29호 15면 참조> 1부 기원법회에 이어 2부 현근스님(조계사 주지) 법어집 출

판기념회로 진행된 이날 법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주스님을 비롯 녹원 지광 설정 종하 태운 홍파스님등 교계 중진스님과 서돈각(진흥원 이사장), 송석구(동국대 총장), 박찬중(국회의원), 권익환(경각회장)의원, 최재구(경각동우회원), 강한필(불교방송 사장)등 7백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원주스님은 법어를 통해 “민

족의 통일염원이 담긴 보궁이 서울 중심가에 세워진다니 기쁘기 그지없다”며 “통일을 염원하는 대각불사가 원만성취되어 통일이 앞당겨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사에 건립되는 만물보전은 전통건축양식과 현대건축기법이 어우러진 국내 최대규모의 5층 담 법당으로 오는 8월에 기공, 97년 말 준공된다.

# 불교 성순 지례

**백두산·연길·북경 5일**

- 출발: 6월 25일
- 동참금: 100만원
- 일정: 서울-심양-연길-백두산-북경-서울

**스리랑카 6일**

-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 출발: 6월 20일
- 동참금: 118만원

**여행조건** ●특급 및 1급(인도성지지역은 현지최고 수준) 2인 1실 기준 ●전일정 식사 제공(인도성지지역은 한식제공) ●최소 출발인원:10인 ●전문 가이드 동행 ●여행자 보험

**인도네시아 5일**

- 세계 최대의 불교기념비:보로부두르 사원-
- 출발: 6월 18일
- 동참금: 95만원

**대만 5일**

- 불광사·화련·타이케이-
- 출발: 6월 20일
- 동참금: 65만원

**국불교유적지 13일**

- 출발: 6월 20일
- 동참금: 195만원
- 일정: 서울-상해-계림-서안-낙양(용문석굴)-송산 소림사-정주-태원-오대산(문수보살도량)-대동(운강석굴)-북경-서울

**크로드 불교 유적지 11일**

- 출발: 6월 23일
- 동참금: 188만원
- 일정: 서울-상해-소주-항주-서안-난주(병령사 석굴)-돈황(천불동)-투르판-우룸치-북경-서울

**벵·네팔 10일**

- 출발: 7월 20일
- 동참금: 230만원
- 일정: 서울-카트만두-라사-체탕-장제-시가체-라사-카트만두-서울

HVECHO ADVENTURE TOURS, LTD. **헤초여행사** 국외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544-1533(대)

**경력 및 신입사원 모집**  
사세 확장으로 의욕적인 인재를 모집합니다.